21과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관대 저희를 위해서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 보실 때 참 세상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하며 구더기같은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높고 귀한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참 천한 사람들이나 받는 그 대우를 받으시고 모욕과 질시를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귀한 시간인줄 압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우릴 구원해주신 예수 구주를 믿으며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모든 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세상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압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교사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수양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도 빠지지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많은 친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며 또한 그 일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한 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 다 찾았죠?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십 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찌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은 제 20과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그 범위는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장 16절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자의 죽음 열 번째 재앙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우리는 연결시켜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학습목표 1번 하나님을 대적하면 영원히 멸망당함을 알게 한다

2번 유월절 양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열가지 재앙 제가 읽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우상임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열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오직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이시고 그다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열 가지 재앙 우리가 앞 글자를 따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고 있죠?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메 흑 장자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고 있죠

첫 번째 재앙이 모든 물이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악질 재앙 여섯 번째는 독종 재앙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3일 동안 흑암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 해서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열 가지 재앙을 딱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네 들에게 그네들이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예요

그리고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그네들의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숭배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알게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다신 많은 그 알을 낳아서 개구리의 번식률이 뛰어남을 인해서 다 신의 신으로 섬겼고 이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독종 재앙, 메뚜기 재앙, 3일 간 흑암 재앙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파리 같은 경우 또 이 같은 것은 그네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네 들이 그 괴롭힘을 면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파리와는 틀립니다

이 파리는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빠는 괴롭히는 그런 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피할려고 파리의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겼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파리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그네들에게 직접적인 살아가는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입니다

메뚜기 같은 경우도 농사 다 지어 났는데 한 순간에 메뚜기가 와서 농사를 다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자기들의 농사지은 것을 해하지 않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만들어서 신을 섬겼다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네들에게 지금 재앙을 다 내린겁니다 열 가지 재앙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마름모꼴로 해놓은 것 있죠

강박한 바로의 마음해서 출애굽기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를 쪽읽다보면 강박케 했다는 말씀이 완고하게 했다는 말씀이 많이 반복 되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처럼 믿고 안 믿고를 미리 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인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이나 죄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심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져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하도록 그냥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둔겁니다

그게 강박케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박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었다는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완고한 마음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그냥 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강박한 마음 상태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시켜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신거예요

이 모든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겁니다

강박케한다고하는 것은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믿어

그게 뭘니까?

그게 강박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둔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라고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사람을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는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는거예요

강박한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강박한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강박케 하지말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은혜를 배척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느 길을 선택할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거냐, 아니면 그 강박한대로 마귀를 따라갈거냐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강퍽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번 바로의 타협 해서 마귀의 꾀계는 그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도 마귀의 꾀계는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은 죄악 된 세상을 말하며 바로는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는 더욱 힘든 고역과 위협을 가하다가 안 되니까, 네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해서 세상 지혜와 타협하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협박을 해요 그다음엔 핍박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돌려보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되니까 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바로왕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가 시간이 남는구나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따르 소리하지” 그렇게 해서 바로의 벽돌을 만들적에 짚을 줬습니다 짚을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시간이 남으니까 짚도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동일한 수로 벽돌을 찍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안 될 때 계속 채찍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감독자들이 바로를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일을 시킵니까 이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한가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거 아니냐 잔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그네들이 와가지고 원망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 헐박을 합니다 그럴죠?

헐박을 하고 꼼짝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고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쓰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안 당해보셨어요?

어떤 방법 씁니까?

타협하죠?

‘가는건 좋은데 그 시간만 가라 일요일만 참석했다 나머지는 지장없게해라’ 뭐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타협안을 조금씩 더 주지요 더

그래서 마귀의 방법은 그렇게 쓴다는겁니다

안 된다 딱 해봐놓고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타협하는거예요

유인물 보겠습니다

괄호 1번 1차 타협안해서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멀리 갈 것 없다 이땅에서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1차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합당할까요?

떠나는 겁니다

이 바로의 권세에서 손아귀에서 영원히 떠나버리는거예요

이 타협안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2차 타협안에서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2차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3번 3차 타협안해서 출애굽기 10장 10절~11절까지 한 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 다음에 3차 타협안이 뭐냐면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4차 타협안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가도 좋다 다 가도 좋는데 그 짐승은 놓고 가라 짐승은 그렇게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야를 갈 때 짐승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네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타협안 준 거기 보면 그 바로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이만큼 양보하지만 결국에는 내 권세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유월절 어린양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처럼, 죄인이 천국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를 흘리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양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유월절은 해의 첫 달 이렇게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의 그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건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은 다르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 ,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기 전 4일 전에 예비된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을 4일 전에 열흘 7월 10일날 예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비됐어요?

창세전,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창세 전으로부터 예수그리스도는 예비되었다는겁니다 어린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어린양으로서 창세전으로부터 예비되었다는겁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어린양이어야 한다 해서 유월절 어린양은 흠 없는 어린양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출애굽기 10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유월절 잔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날 그 유월절날 해 질 때에 그 양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질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정확히 3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정확히 유월절 어린양 죽을 때 그 시간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간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어린양으로서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구시라고 하는 것은 3시를 말씀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이 3시 해질 때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정확히 그 동일한 시간인 3시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뿌리심해서 출애굽기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 속죄의 양으로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온 식구가 먹음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도 한 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집마다 양의 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그런 것들이 주님오실 때까지 반복이라는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그 교회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속 공급받는 것을 하나님 몸을 먹는다고 표현하는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주님 몸된 교회에서 교제와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은 그 집에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신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음해서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교병을 먹어야되는겁니다

그 양을 잡은 그 집집마다 그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되는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묵은 누룩이 있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는데 묵은 누룩은 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거예요

글서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하는 것처럼 죄 없는 성결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서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된다는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음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이제 그네들은 날만 새면 이제 바로 떠나야되는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어디로 떠나죠?

어디로 떠나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장차 망할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라는겁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심판을 지나가게 함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어린양은 이제 죽었어요

어린양은 죽고 그 죽은 어린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뭘해야 됩니까?

문예다 발라야 된다는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겁니다

그 재앙을, 재앙을 면하려면 그 문예다 피를 발라야 되는거예요

예수님 2000년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다 압니다

그거 아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나하고 관계를 지어야 되는겁니다

그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그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되는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야된다는겁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개인적으로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거듭나는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없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피할 수 없는겁니다

교훈 이렇게 써놨습니다

1번 우리는 바로와 하나님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처럼 강박하게 하면 안된다 했는데 하나님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동일하게 아이들도 이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라는겁니다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적한 것처럼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 있기 전에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거냐 내가 그것이 중요하다는거예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야된다는겁니다

두 번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타협하려고 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세상죄와 타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교사 직분을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 마디 유혹에 끌려 세상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겁니다

내 마음에 흑시라도 이런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다면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은 그 어떠한 타협도 그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신앙 안에 붙어있어야한다는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어린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넘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네들에게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 다 데리고 가는건 당연한거고요

또 새로운 아이들 많이 데리고 가야되는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 우리가 전도집회를 해도 여기서 전도집회하는거하고 소집회하는거하고 여름성경학교에서 전도집회하는거하고 틀리다는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거예요

정말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거기로 막 이렇게 인도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역사를 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산교회에 많은 아이들중에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구원받고 내려올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거예요

새로운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서 그 아이들도 구원받고 내려와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게 하셔야 된다는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그리스도의 비교는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릴 구원해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운데 한 지체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과 또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매함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아이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선생님들 어디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그 마음은 이곳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